

광양만권 탄소자원화 시범단지 구축 (Model Complex Construction for Carbon Resources Utilization)

신연호<sup>†</sup>

전남도청 창조산업과

(sh5116@korea.kr<sup>†</sup>)

- 미래부 탄소자원화 전략은 저부가가치로 활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(CO<sub>2</sub>), 부생가스 (CO, CH<sub>4</sub>)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음.
- 정부에서는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파리, '15. 12.)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2030년 BAU 대비 37%를 감축 (8.5억톤에서 3.1억톤 감축) 해야 함.
- 전남 광양만권은 '13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695백만톤 (세계 6위) 중 11% (7천만톤) 이상을 차지함.
- 타 지역에 비해 탄소자원 및 경제성이 높은 고농도 CO<sub>2</sub> (98%이상 2.7백만톤) 배출량도 많아 시범단지 구축에 유리함.
- 전남에서는 탄소자원화 전략을 위해 토지 및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고, 정부 역점사업인 지역전략산업에도 광양만권을 탄소자원화 규제프리존 지정방안 검토 중임.